



#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야 할 사상정신적유산

오늘 우리 당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살며 투쟁해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높이 발휘된 영웅적투쟁정신을 뜻하여 계승하여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위대한 전승의 업적과 전통을 끝없이 빛내려는 숭고한 의도가 담겨 있다.

경에 하는 김정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을 이어받아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전승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합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인류전쟁사상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치열한 전쟁이었다. 청소년들이 공화국과 미제를 피수

로 하는 추종국가군대들과의 방대한 역량 차이가 두드러진 것은 자부나나 군사전문가들이 《승부가 명백한 전쟁》이라고 떠들어댄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여지없이 패한것은 다름아닌 미국이며 우리 조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최강)를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한 영웅적전승으로 위용떨쳐냈다.

혁사의 이 기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 한 지도로 산악같이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정신, 견결한 조국수호정신이 안아온 빛나는 승리이다. 기적처럼 전승의 불비속을 헤치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마지막 한방울까지 바쳐 싸우으로써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위대한 전승의 7.27을 안아온 1950년대 방위자들의 조국수호정신이야말로 금은보화도 비길수 없는 사상정신적유산이며 우리 세세대들이 물려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재부이다.

조국해방전쟁의 진행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적후퇴로 떠밀어준 원동력으로 되었다. 리수봉영웅이 18살의 꽃나이에 피륙은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고 부대의 진격로를 열어준 불굴의 기개를 발휘할수 있었던것도 월미도 영웅사들이 단 4분의 포를 가지고 적의 5만대군과 맞서 3일간이나 섬을 결사수호한 전투신화를 창조할수 있었던것도 그들의 가슴마다에 자기 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자기의 귀중한 모든것을 빼앗으려는 원수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이 짙차 있었기때문이었다. 조국의 운명이자 자기의 운명이라는것을 자각한 인민, 자기의것에 대한 사랑으로 심장을 끓이는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침략자와 맞서싸워도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것이 전승의 나날에 확증된 진리이다. 세기가 바뀌고 세대는 교체되어도 이 철리는 결코 달라질수 없다.

지금 계속되는 전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세세대들이 우리 혁명의 주력을 이루고있는 기회를 리용하여 이 땅 위에 도다시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려고 발악하고있다. 그러나 1950년대 영웅적전승의 숭고한 애국의 빛이 굳건히 어찌고있는 신성한 우리 조국강토에서 그 어떤 다른 결과만 있을수 없다. 미제와 그의 판각리자에서 최후승리를 떨칠 필승의 신념이 만장약되어있는 미더운 세세대들이 천검만검의 성세를 이룬 우리 조국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불패의 장군으로 위용떨쳐나올 것이다.

## 혁명의적관주의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참기 어려운 고통과 시련을 수없이 겪었다. 그러나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계속되는 투쟁에 불타는 열정을 안겼고 전진생전의 동음을 힘차게 울렸다. 하루에도 수천수만발의 포탄과 폭탄이 떨어지고 적들이 수직차적 공격해오는 것처럼 가열한 전투에서도 인민군사들은 피리, 가야금을 비롯한 화성악기들을 만들어 음악회를 열었고 후방의 인민들도 전쟁의 어려운 시련에서 비판하지나 주저하지 않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탁월한 것으로 생활하였다.

사실상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쟁터에서 명량하고 락적적으로 살아가는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이것은 자기 위인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간직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서만 발휘될수 있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관주의정신, 이것은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하늘이 무너져도 찬아날 구멍이 있다는 신념과 배짱을 안겨주고 전쟁승리로 온 나라를 백두의 산악같이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불비출어지는 전진길을 끝없이 걸고있는 우리 세대는 군인들에게 무적의 용명을 안겨주신분이

시 승리할수 있다는것이 전승의 나날에 확증된 진리이다. 세기가 바뀌고 세대는 교체되어도 이 철리는 결코 달라질수 없다.

지금 계속되는 전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세세대들이 우리 혁명의 주력을 이루고있는 기회를 리용하여 이 땅 위에 도다시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려고 발악하고있다. 그러나 1950년대 영웅적전승의 숭고한 애국의 빛이 굳건히 어찌고있는 신성한 우리 조국강토에서 그 어떤 다른 결과만 있을수 없다. 미제와 그의 판각리자에서 최후승리를 떨칠 필승의 신념이 만장약되어있는 미더운 세세대들이 천검만검의 성세를 이룬 우리 조국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불패의 장군으로 위용떨쳐나올 것이다.

우리 수령님이시었고 적들의 대대적인 침략무렵이 시작되고 달려들었다는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배심원들의 지휘관들의 추궁을 견디고 사수하여 싸움터마다에서 웃음과 평안의 넘쳐도록 이끌어주신분도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하에 우리 인민군사들은 승리의 열병행진을 그려보며 원수 미제와의 싸움에서 불사신의 용맹을 떨쳤고 인민들은 전쟁에서 싸워나가기만 하면 복귀는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락관을 가지고 전진생산과 전진원호에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은 승리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기 위한 사상정신적유산이다. 신념들의 붉은 피가 스민 이 땅에 태를 묻고 자라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고귀한 투쟁정신을 뜻하여 계승해나가야 할 것이다. 더 성스러운 임무는 없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1950년대에 발휘된 조국수호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강성국가건설과 반미대결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전승의 7.27을 영연한 승리의 7.27로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오 수 경

경에 하는 김정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군정병들과 인민들속에서 조국해방전쟁사상을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야 하겠다.」

전승의 추모가 오른 때로부터 60여년이 지나갔다. 하지만 이 땅 위에 드러온 전쟁의 검은구름은 한순도 가시지 않고있다. 반면에 전승을 겪어보지 못한 혁명의 4세, 5세들이 오늘 사회주의건설

교양거점들에 승리전통교양거점들은 전승의 빛나는 역사를 같이 전하는 기념비적이야 할 군대와 인민, 자라나는 세 세대들을 신념과 의지의 강자, 열렬한 애국자, 견결한 반제국주의로 키우는 학교이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정신과 수령님의 명명을 끝까지 결사관철한 인민군용사들, 인민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이 뜨겁게 불타고있으며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야마는 영웅적전승의 기상이 맥박치고있다. 조국해방전쟁의 만만사연을 전하는 사상물들과 자료들, 유물들의 가치와 승리의 구체적이며 생생한 해설강의를 통하여 참관자들

조국의 천리방선에서 병사들이 고향에 전하는 가슴뜨거운 소식,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가뭄이 없이 고된 밤에도 이분세백에도 초소들을 찾으면서 병사들을 환호에 안아주시며 향수를 뿜어주는 어머니사이에 대한 이야기 정병 얼마나 많은것인가.

아래의 이야기도 그중 하나이다.

어느 이른봄날이었다. 봄이 라지만 늦추위로 하여 날씨는 아직 쌀쌀하고 깊은 밤이면 추위가 더하였다.

바로 그런 한밤에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의 한 중대를 찾으시었다.

휘침구멍이 내린지 오래여 지 중대에 높은 교요가 깎여있었다.

초소를 찾으면 병사들을 꼭 꼭 만나 보시는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뜻이 어찌하였는지 물어 보시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이곳에 무장장비들이나 보지고 온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깊은 밤이어서 군인들을 만나볼수는 없지만 그들이 자는 모습이라도 보아야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디. 나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음이 편해지니 그들에게는 마음을 멈추시고 군인들이 자는 모습이 라도 보고 가야 마음이 편하겠

다들 인제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그곳에 가보라고 하시며 먼저 걸음을 떼시었다. 서두르시는 그의 모습은 마치도 만사시의 얼굴을 본 후 둘째 자식을 찾아가는 친부모의 모습 같으시었다.

이윽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침실문앞에서 서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면서 어서 밖으로 나가자고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병사들을 깨울세라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시었다. 침실을 나서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금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단잠에 든 병사들... 침실안에는 자식들을 잠재우고 그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미소를 짓는 그런 애뜻한 가정적분위가 절제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경에하는 원수

# 21세기 본보기축산기지건설을 최대의 속도로,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 시공의 전문화는 비약의 열쇠

황해북도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군인기질, 군인본색으로 새로운 건설속도를 창조하고 있다.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에서 지난 시기 무작을 나타내지 못하였던 이들이 올해 봄에 들어와 온 건설장의 이복을 집중시키며 건설속도를 부쩍 높이고 있다.

려단일군들은 그 비결에 대해 물을 때면 이렇게 말하곤 한다. 비약의 열쇠는 시공을 전문화할 때에 있다. 실천속에서 찾은 교훈이 있기 때문이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시공을 전문화하는 것은 시공의 속도와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인입니다.》**

려단일군들은 올해의 대상건설을 작전하는 과정에 생각되는 바가 있었다. 려단앞에 제기된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건설방법을 새롭게 혁신해야 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시기 려단에서는 적지 않은 노력과 지혜, 시간을 투하하여 건설을 진행했지만 응당한 건설을 보지 못하였다.

이 사실은 건설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더구나 올해에는 이미 진행하던 대상건설을 완공하는 것과 함께 수십동의 새 건물을 일떠세워야 했다. 지난해보다 공사량이 더 방대한

황해북도려단 일군들의 사업에서

조전에서 종전의 건설방법을 되풀이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명백했다. 그런것으로 하여 일군들은 마음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으로 몇몇이 들어서자던 건설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도를 기어이 찾아내야 한다.

일군들은 이런 열의로 가슴 뚫으며 토론을 거듭했다. 목표는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럴 때 려단정치일군이 공약을 띄워주었다.

《방도는 시공을 전문화할 때에 단 당정책관철대책을 보다 실속있게 세우는데서 찾아야 합니다.》

려단장이 누구보다 먼저 그 의견을 적극 지지해나섰다. 려단의 실정에 시공의 전문화는 선진적으로 해결해야 할 절실한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사실 려단에서 당창건 일흔년을 맞으며 내세운 대상건설목표를 높이고 때 그 수행기간은 짧았다.

이 기간에 그것을 원만히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반복시공을 없애는 것이었다. 반복시공은 곧 로력과 자재, 시간낭비를 의미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자면 돌격대원들의 기술가능수준

을 높여주는데 더욱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문제를 이렇게 본 려단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그 방도를 찾았다. 물론 건설전투가 긴장하게 벌어지는 때에 로력과 시간을 똑 떼내어 이 사업을 할 수는 없었다. 때문에 이들은 건설을 내밀면서 현장조건에 맞게 짧은 기간에 가능공을 대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았다.

기술소대를 무어 운영하는 방법이 그중의 하나였다. 기술소대를 갖는 목적은 각 대대가 마감미장을 빨리, 질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한 데 있었다. 일반적으로 건물기초를 파고 콘크리트기를 하며 벽체를 쌓는 것과 같은 일은 돌격대원들 누구나가 공법의 요구대로 붙이면서 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마감미장은 고급한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이므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지난 시기의 경험에 그대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건설미감공정수행을 맡은 돌격대원의 능력이 부족하면 질을 보장하지 못하여 반복작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건설속도가 떨어지거마련이었다.

여기로부터 일군들은 기술소대를 무어 운영하는 문제를 중시하고 실정에 맞게 해결하였다. 이들은 먼저 몇몇 고급기술

공을 준비시켰다. 그리고 대대들에서 일정한 기능이 있는 돌격대원들을 선발하여 기술소대를 꾸렸다. 고급기능공들은 이 돌격대원들과 어느 한 건물마감미장작업을 함께 하면서 높은 기술을 배워주었다. 그 과정에 미장의 요령을 터득한 돌격대원들이 돌아가면 대대들에서는 그들을 핵심으로 하여 같은 방법으로 기술소대를 꾸리고 운영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각 대대에서 기능공들에 의한 미장작업의 전문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

일군들은 이 방도를 찾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대대일군들에게 혼합물에서 어느 한 첨가제를 섞어 마감미장을 하고 외장재를 바르도록 했다. 그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잘 살아나며 오랜 기간 그것이 보존된다는 데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다. 그러나 외장재바르기를 거느려야 한다고 로력과 자재,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기왕이기도 전문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받아들이는 사실을 더 보자.

일군들은 건재의 국산화를 실현할 때에 대한 뜻을 받들고 도에서 나오는 스템틀을 기와로 리용하도록 했다. 그런데 돌격대원들중에는 스템틀기기를 하는 데서 경험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그러다보니 작업시간이 오래고 질도 높일 수 없었다. 일군들은 이런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 기초하여 해당한 방도를 찾았다. 도일군들과의 면담에서 수십명의 기능공들을 선발하였다. 그들중 여러명의 작업조를 무어 기와기기를 전문적으로 하도록 했다. 결과는 좋았다. 종전에는 돌격대원들이 한동의 살림집에 기와기기를 하는데 10여일이 걸렸다. 하지만 이제는 며칠간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돌격대원들이 기능공들과 함께 일하면서 스템틀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었다.

일군들은 대대에서 이런 방법으로 모든 공정을 앞당겨 수행하면서 대상건설을 설립적인 방법으로 해체해도록 설립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결국 려단의 건설속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지게 되었으며 방대한 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확고한 승산이 보이게 되었다.

일군들은 시공의 전문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설비와 자재보장사업을 진행시키는 문제도 놓치지 않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찾이던 비약의 열쇠로 전진의 돌파구를 계속 힘있게 열어제끼고 있다.

## 축산기지운영의 양질을 내다보며

농업성들격대에서는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 농업성들격대에서는

농업성들격대에서는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농업성들격대에서는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농업성들격대에서는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농업성들격대에서는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농업성들격대에서는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농업성들격대에서는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농업성들격대에서는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농업성들격대에서는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축산기지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 그들은 곧 농기계제작에 요구되는

부속품과 자재보장을 위해 뛰어들었다. 그 과정에 씨메와 두둑기기를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훌륭히 완성할 수 있었다. 일군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비료주기와 풀베기기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제기되었지만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서로의 힘과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농기계들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그들은 농기계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밤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현신의 땀방울을 목욕히 바치었으며 주요부속품들을 자체로 가공하면서 농기계를 조립하였다.

그러나 최영호동무는 생각이 깊었다. 만일 돌격대가 철수한 다음에도 지금까지의 투쟁을 보장할 수 있는가. 그는 생각을 깊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의 구상에 따라 밀려서는 대규모축산기지가 앞으로든 온 내자면 그 운영까지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자면 기계화를 빨리 실현해야 한다.) 그의 생각은 일군들의 지지를 받았다. 일군들은 즉시 등반기계화조성을 하고 돌격대원들을 풀판조성에 받아들이는 결과를 좋았다.

풀판조성을 하고 돌격대원들을 풀판조성에 받아들이는 결과를 좋았다. 풀판조성을 하고 돌격대원들을 풀판조성에 받아들이는 결과를 좋았다.

풀판조성을 하고 돌격대원들을 풀판조성에 받아들이는 결과를 좋았다. 풀판조성을 하고 돌격대원들을 풀판조성에 받아들이는 결과를 좋았다.

풀판조성을 하고 돌격대원들을 풀판조성에 받아들이는 결과를 좋았다. 풀판조성을 하고 돌격대원들을 풀판조성에 받아들이는 결과를 좋았다.

풀판조성을 하고 돌격대원들을 풀판조성에 받아들이는 결과를 좋았다. 풀판조성을 하고 돌격대원들을 풀판조성에 받아들이는 결과를 좋았다.

풀판조성을 하고 돌격대원들을 풀판조성에 받아들이는 결과를 좋았다. 풀판조성을 하고 돌격대원들을 풀판조성에 받아들이는 결과를 좋았다.

## 기공구준비이자 공사성과

### 국토환경보호성들격대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시공의 공업화, 현대화에서 기본은 건설설비와 기공구의 현대화입니다.》**

올해 국토환경보호성들격대에서는 자연환경조성과 함께 염소우유, 수의방역소를 건설해야 할 과업이 나왔다. 방대한 공사과제를 제기함에 걸맞게 수행하는데서 선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놓고 토의를 거듭하는 과정에 돌격대일군들은 기공구준비를 중시하였다.

교훈이 있기 때문이었다. 돌격대에서 염소우유들과 수의방역소내부공사를 진행할 때였다. 천정미장, 건구작업에 많은 로력이 집중되었지만 성과는 그리 크지 못했다. 일군들은 그 원인을 따져보았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기공구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히 문물조립이나 천정미장을 하는데 필요한 완성공구나 조립공구들이 많지 못한 결과 속도와 질을 높일 수 없었던 것이다.

사실 건축공사가 한창 진행될 때까지도 하여도 성에서 보내준 기공구들이 기공구를 가지고나와 도와주었다. 그러다보니 일군들은 그들이 철수할 때에도 기공구문제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 후과는 컸다. 일부 돌격대원들속에서는 품이 많이 드는 작업대상들은 전번처럼 기능공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기공구준비사업을 취전에 미리 놓고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결코 소홀히 볼 문제가 아니었다.

대형 한강택동무는 즉시 협의회를 열고 찾은 교훈의 심각성을 깨우쳐주고나서 절절하게 말하였다. **《계획을 믿지 못하고서는 이 방대한 공사과제를 제기할 수 없을 수 없습니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당의 뜻대로 우리 자체로 기능공들을 키우고 기공구도 마련합니다.》**

일군들 모두가 지지해나섰다. 일군들이 앞장서 기공구를 마련하기 위해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 돌격대원들속에서는 많은 기공구들이 창안되었다. 이때 일군들이 놓치지 않은 것은 늘봄에는 기공구를 갖추는

사업이었다. 건설초기에만 돌격대에는 돌이나 대패와 같은 공구들밖에 별로 없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리용하는 돌이나 대패는 작업능률이 높지 못하였다. 말은 대상공사를 더 빨리, 더 질적으로 끝내려면 늘봄에는 공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였다.

사색을 거듭한 끝에 전기대패, 기계를 들을 마련하여 리용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돌격대원들이 이 방기를 지지해나섰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늘봄들은 기공구들이 마련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성의 책임일군들은 출력이 높은 발전기기를 보내주어 기공구들이 자기의 능률을 다 발휘할 수 있게 해주었다.

돌격대에 늘봄은 기공구들이 갖추어지지 돌격대원들은 일을 할 때에 하면서도 적은 로력과 자재로 건설을 내밀 수 있었다. 기공구준비이자 공사성과이다. 이런 교훈을 찾아 실현에 구현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돌격대는 자력갱생하는 단위, 힘있는 돌격대로 자라날것으로 하는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정병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갈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인민보안부러단 함경북도인민보안군대에있는 열흘 동안에 공사대상의 벽체를 쌓고 측량을 칠수 있게 할 때에 대한 과업이 나왔다. 작업장을 보면 거의 한달만에 해당한 것이었다.

군인건설자들은 초조한 눈빛으로 지휘관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일단 명령만 내리면 산악처럼 밀려서 오는 그들의 당대 기동력은 새 대장건설에 대장 김덕준동무는 드디어 결심을 내렸다.

목표를 무조건 제기일에 수행하기 위해 하루에 한공정씩의 체제까지, 이것이 그가 내놓은 전투방안이었다. 이 방안은 세로 등반에서의 전투과정에 담겨 있던 지휘관들도 어지간히 놀라게 하였다. 그렇지만 했다. 기초가만 해도 며칠 걸려야 하는데다가 이미 하던 대상건설공사까지 완공해야 하는 조건에서 이 방안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한 일군들은 높은 지대에 있는 철산 협동농장전에 우물을 파고 돌고 돌고 나오면 모든 농장에서 우물을 파도록 하자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다음날 이 농장에서는 우물을 파기 시작하였다.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땅을 평균 7~8m 깊이 파는 데 우물 하나에 2정보 이상의 포전을 칠수 있는 물이 있었다. 현실은 우물만 파면 군적으로 천수백의 알곡을 더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그 말을 들은 일군들은 생각하는 점이 많았다. 물 확보 사업을 단속한 실무적인

## 목표수행에서 래일이란 없다

### 인민보안부러단 함경북도인민보안군대에에서

우려가 없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공사 목표수행에서 래일이란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서서 달라붙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대대장 지도인 리철호동무가 이렇게 지휘관들을 고무해 주었다. 지휘관들은 신심있게 일떠서 구체적인 작전을 하였다.

우선 로력조직을 설정에 맞게 하였다. 이미 진행하던 대상건설은 마감단계에 들어섰지만 여기에는 일부 기능공들만 남기고 기동력은 새 대장건설에 대장 김덕준동무는 드디어 결심을 내렸다.

합리적인 공법도 찾았다. 건설속도를 높이기 위해 블록에 의한 벽체쌓기를 하기로 했다. 일제식으로 벽체를 쌓으면 콘크리트혼합물이 굳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이 방법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하여 기초파기를 하지 못하는 이물들만에 대대령이 총동원되어 유류자재를 수집하기로 했다. 부족되는 블록을 찍기 위한 대책도 세웠다.

여개의 우물을 더 파야 물조건이 불리하던 포전에서 물을 댈 수 있다는 결론이 떨어졌다.

군에서는 즉시 우물파기작전을 펼쳤다. 이때 군일군들이 잘한 것은 우물이 늘어나는데 때를 양수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따르세 운동이었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물원천이 없다고 하던 삼기협동농장에서 100여개의 우물이 생겨났음을 비롯하여 염동, 용, 월평협동농장 등 모든 농장포전에서 우물이 더 생겨 700여개로 늘어나고 백수집대의 양수기가 마련되었다. 결과 천수백의 알곡을 증수할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군일군들은 위대한 전진군일벌쳐추신 황금벌의 새 역사를 대대손손 빛내어가자던 현실을 현실적인양식으로 보고 실리를 따져가며 일단을 벌여야 한다는 교훈을 찾게 되었다.

본사기자 김장길

작업도구준비는 어떻게 하였는가. **《우물문제를 보자. 대대에서는 기초공구(리틀리)에 쓸 휘틀을 종전보다 크게 만들었다. 휘틀을 조립하고 해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적지 않았으며 일단 설치하면 단번에 기초공구(리틀리)를 해체하기 위해서였다.》**

기초공구(리틀리)를 한 후 자연적으로 굳어지게 하면 하루에 한공정씩 수행하기로 한 일정계획을 맞출 수 없었다. 때문에 지휘관들은 인공적인 방법으로 굳이기 위한 준비사업을 진행시켰다.

대대에서는 이렇게 전투전에 승리를 담보해준 건설을 시작하여 일정계획대로 내밀었다. 건설도중에 비가 내리자 지휘관들은 10m에 한계씩 말뚝을 박고 그우에 미리 준비했던 박막을 씌운 다음 작업을 계속하는 밤낮이 따로 없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이처럼 공사목표수행에서 매일 이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단행된 과업을 기어이 수행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글 및 사진 현진보도단

5월 하순까지 예견되는 기상조건과 농사대책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부침땀 흘려서 재한되어 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을 늘리기 위한 근본요소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업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보당 수확량을 최대로 높이는 데 있습니다.》**

5월 하순 우리 나라에는 주로 이동성고압과 저압전선대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견된다. 평균기온은 황해도, 함경북도에서 13.9~14.3℃, 그밖의 지방에서는 17.4~19.3℃로 전반적지방에서 평년보다 0.3~0.8℃ 높을 것으로 예견된다. 함경북도에서는 지난해에 비하여 1.3℃ 높으며 그밖의 지방에서는 0.5~2.5℃ 낮을 것으로 본다.

5월 하순 강수량은 전반적지방에서 13~25mm로서 평년의 50~75%로 적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에 비하여 평양, 평안남도, 황해도, 강원도에서는 6~19mm 많으며 황해남도에서는 27mm정도 적을 것으로 본다. 그밖의 지방에서는 지난해정도일 것으로 예견된다.

토양습도는 전반적지방에서 67~73%로서 평년정도이거나 평년보다 약간 높으며 지난해에 비하여 평양, 평안남도, 강원도에서는 6~7% 높을 것으로 예견된다. 그밖의 지방에서는 지난해정도이다.

각지 농촌에서는 비모기기를 적기에 걸작으로 해야 한다. 모종류별로 모내기시기에 도달한 모를 제때에 내야 한다.

남겨놓고 추어주어야 한다. 벼생육단계별비료주기를 계획해 바로세우고 전반적비료주기를 잘하여야 한다. 모종류와 물조건에 맞게 살초제를 규정대로 쳐서 길을 잡으기 위해 살초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냉이밭갈매기와 후지질을 잘하여야 한다. 5월 11~12일에 내린 비로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에벌김매기를 특별히 잘하여야 하며, 세벌김매기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길을 잘하여 고랑의 길을 잘하여 토양구조를 좋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적과한 강냉이밭에서 씨숙음과 빈포기예비를 잘하여야 한다. 추운 강냉이가 2~3일 늦게 되는 시기에 해야 한다. 추운 늦게 하면 토양영양분이 많이 소비되고 비료효과가 떨어지며 반대로 지나치게 일찍 하면 강냉이가 쉽게 손상되어 빈포기가 더 생길 수 있다.

빈포기를 잘하여야 한다. 빈포기예비는 적과한 강냉이가 2~2.5일 되는 시기에 하는 데 같은 품종으로 하는 경우 적과한 강냉이보다 1~2일 더 많은 강냉이로 하며 다른 품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과한 강냉이보다 키가 큰 품종을 선택하여 빈포기를 잘하여야 한다. 빈포기를 잘하면 비료와 물을 충분히 주어야 생육을 촉진시켜야 한다.

모를 낸 후 2~3일안에 빈포기를 없애야 한다. 소식제배를 한 포전은 밀식제배를 한 포전보다 빈포기에 의한 소출감소를 이 높으므로 보식을 잘하여야 한다.

벼모판에서 박막관리와 비료주기, 물주기를 잘하여야 한다. 발생상태를 기르는 조건에서 모판에 비료를 준 다음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하며 노소비를 주는 경우 암모니아가스에 의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비닐박막을 2일정도 완전히 벗겨야 한다. 온도가 낮아 밤에 박막을 씌우는 경우 구멍환기를 시켜야 한다.

부득이한 상황에서 영양단지를 적기에 걸작으로 해야 한다. 모종류별로 모내기시기에 도달한 모를 제때에 내야 한다.

## 가물막이전투를 힘있게 벌리자

덕성군에서 당의 의도대로 물확보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서 군일군들이 잘한 것은 1000여개에 달하는 관개제가 완성되어 물경쟁을 모르고 농사를 지어왔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달랐다. 지난해 백년래 왕가물로 물이 전례없이 긴장하였다. 이로부터 군에서는 강화천의 100여개소에 보를 막아 적지 않은 물을 확보했다. 그리고 20여개의 골포를 만들고 수십개의 우물을 파놓는데 기초하여 많은 면적의 논에 영양단지모제배방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제로 되는 것은 물원천이 없는 높은 지대 포전들이었다. 이를 놓고 일군들은 올해는 영양단지모제배방법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물피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관개일군들은 하늘만 쳐다보며 농사를 지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우리 군에는 물조건이 매우 불리한 포전들이 1000여개나 된다. 이 포전들에 물을 대지 못하면 정보당 수확고가 300~500kg, 지어 1t 이상 떨어진다. 그러나 방도는 있다. 우리 군의 북부에는 부진평산줄기가 있고 동부와 서부에도 산줄기가 있다. 이 산줄기들에 나무가 있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것이다. 장흥협동농장에서는 군의 이러한 자연지리적특성을 보고 높은 지대 포전들에 여러개의 우물을 파다. 농장에서는 땅을 평균 7~8m 깊이 파는 데 우물 하나에 2정보 이상의 포전을 칠수 있는 물이 있었다. 현실은 우물만 파면 군적으로 천수백의 알곡을 더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그 말을 들은 일군들은 생각하는 점이 많았다. 물 확보 사업을 단속한 실무적인

가물피해를 막는데서 물원천을 확보하는 것 못지 않게 논벼생육에 필요한 물량을 정상적으로 보장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농장에서는 이 문제를 중시하고 소형양수기준비사업에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기본수원은 물론 보조수원의 물도 임의의 포전에 댈 수 있는 양수체계를 세워놓음으로써 논벼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놓았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영철

가물피해를 막는데서 물원천을 확보하는 것 못지 않게 논벼생육에 필요한 물량을 정상적으로 보장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농장에서는 이 문제를 중시하고 소형양수기준비사업에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기본수원은 물론 보조수원의 물도 임의의 포전에 댈 수 있는 양수체계를 세워놓음으로써 논벼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놓았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영철

## 우물파기로 얻은 알곡증수 예비

덕성군에서 당의 의도대로 물확보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서 군일군들이 잘한 것은 1000여개에 달하는 관개제가 완성되어 물경쟁을 모르고 농사를 지어왔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달랐다. 지난해 백년래 왕가물로 물이 전례없이 긴장하였다. 이로부터 군에서는 강화천의 100여개소에 보를 막아 적지 않은 물을 확보했다. 그리고 20여개의 골포를 만들고 수십개의 우물을 파놓는데 기초하여 많은 면적의 논에 영양단지모제배방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제로 되는 것은 물원천이 없는 높은 지대 포전들이었다. 이를 놓고 일군들은 올해는 영양단지모제배방법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물피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관개일군들은 하늘만 쳐다보며 농사를 지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우리 군에는 물조건이 매우 불리한 포전들이 1000여개나 된다. 이 포전들에 물을 대지 못하면 정보당 수확고가 300~500kg, 지어 1t 이상 떨어진다. 그러나 방도는 있다. 우리 군의 북부에는 부진평산줄기가 있고 동부와 서부에도 산줄기가 있다. 이 산줄기들에 나무가 있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것이다. 장흥협동농장에서는 군의 이러한 자연지리적특성을 보고 높은 지대 포전들에 여러개의 우물을 파다. 농장에서는 땅을 평균 7~8m 깊이 파는 데 우물 하나에 2정보 이상의 포전을 칠수 있는 물이 있었다. 현실은 우물만 파면 군적으로 천수백의 알곡을 더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그 말을 들은 일군들은 생각하는 점이 많았다. 물 확보 사업을 단속한 실무적인

가물피해를 막는데서 물원천을 확보하는 것 못지 않게 논벼생육에 필요한 물량을 정상적으로 보장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농장에서는 이 문제를 중시하고 소형양수기준비사업에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기본수원은 물론 보조수원의 물도 임의의 포전에 댈 수 있는 양수체계를 세워놓음으로써 논벼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놓았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영철

가물피해를 막는데서 물원천을 확보하는 것 못지 않게 논벼생육에 필요한 물량을 정상적으로 보장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농장에서는 이 문제를 중시하고 소형양수기준비사업에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기본수원은 물론 보조수원의 물도 임의의 포전에 댈 수 있는 양수체계를 세워놓음으로써 논벼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놓았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영철

## 가물막이전투를 힘있게 벌리자

덕성군에서 당의 의도대로 물확보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서 군일군들이 잘한 것은 1000여개에 달하는 관개제가 완성되어 물경쟁을 모르고 농사를 지어왔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달랐다. 지난해 백년래 왕가물로 물이 전례없이 긴장하였다. 이로부터 군에서는 강화천의 100여개소에 보를 막아 적지 않은 물을 확보했다. 그리고 20여개의 골포를 만들고 수십개의 우물을 파놓는데 기초하여 많은 면적의 논에 영양단지모제배방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제로 되는 것은 물원천이 없는 높은 지대 포전들이었다. 이를 놓고 일군들은 올해는 영양단지모제배방법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물피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관개일군들은 하늘만 쳐다보며 농사를 지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우리 군에는 물조건이 매우 불리한 포전들이 1000여개나 된다. 이 포전들에 물을 대지 못하면 정보당 수확고가 300~500kg, 지어 1t 이상 떨어진다. 그러나 방도는 있다. 우리 군의 북부에는 부진평산줄기가 있고 동부와 서부에도 산줄기가 있다. 이 산줄기들에 나무가 있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것이다. 장흥협동농장에서는 군의 이러한 자연지리적특성을 보고 높은 지대 포전들에 여러개의 우물을 파다. 농장에서는 땅을 평균 7~8m 깊이 파는 데 우물 하나에 2정보 이상의 포전을 칠수 있는 물이 있었다. 현실은 우물만 파면 군적으로 천수백의 알곡을 더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그 말을 들은 일군들은 생각하는 점이 많았다. 물 확보 사업을 단속한 실무적인

가물피해를 막는데서 물원천을 확보하는 것 못지 않게 논벼생육에 필요한 물량을 정상적으로 보장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농장에서는 이 문제를 중시하고 소형양수기준비사업에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기본수원은 물론 보조수원의 물도 임의의 포전에 댈 수 있는 양수체계를 세워놓음으로써 논벼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놓았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영철

# 100% 국산화하는 길이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길이다

## 고온공기연소기술용중요장치들과 원료를 모두 국산화한 국가과학원의 성과를 놓고

최근년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고온 공기연소기술이 활발히 도입되고있다. 특히 주목되는것은 선진도자기공장, 경성에서공장 같이 중요장치들과 원료가 100% 국산화된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받아들이고 있는 단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었다.

고온공기연소기술을 공업로들에 받아들일 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을 높이 받들고 국가과학원에서는 이 기술도입에서 핵심으로 되는 절환변과 벌집형사기촉매를 비롯한 중요장치들과 원료를 모두 국산화하였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당에서 내세운 전철단위들을 따라배워 자기 면모를 일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100 (2011)년 4월 김책체철원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우리 나라 과학기술 발전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라고 높이 평가하신 고온공기연소기술의 도입을 이제 100% 우리의 두뇌와 우리의 기술,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추진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린것은 장군님의 유훈, 생생과 건설을 국산화, 주체화할데 대한 당정책판결에서 이룩된 참으로 귀중한 성과이다.

사상건의 불길은 가스발생로용무연알탄의 집결체를 우리의것으로 대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진행되는 열광적인연구에서도 새차게 타올랐다.

지금까지 무연알탄의 집결체로 리용되어 온 후민산은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고온공기연소 기술도입에서 첫 정공으로 되는 가스발생 로제체를 100% 우리의 연료와 원료에 의거하여 운영한다고 말할수 없었다.

기존공식과 기존관념을 타파하기 위한 사상건의 불길은 타오르는 속도에 실장 김철, 연구사 최영남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이 땅의 모든것을 보물로 만들어야 한다는 드높이 있는 과학적신념을 안고 낮과 밤을 이어가며 선행문헌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심화시켜나갔다. 마침내 값비싼 후민산을 어디에나 흔한 점토로 대용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를 찾아내고야 말았다.

이 연구결과는 고온공기연소기술을 새로 받아들이는 단위들에 속속 도입되였으며 이미 이 기술이 도입된 단위들에서 종전의 무연알탄생산공정을 점토를 집결체로 쓰는 공정으로 전환하는데도 도입되였다.

원료의 국산화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연구성과들은 고온공기연소기술을 100% 우리의것으로, 우리 식으로 도입할수 있게 한 첫걸음으로, 튼튼한 기조로 되였다.

원료는 생산의 3대요소라 하므로서 국산화에서 가장 기초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산업이라는 거대한 구조를 생명체로 비유한다면 원료는 피라미드라고 말할수 있다. 피형에 따라 생명체의 속성이 달라지고 서로 다른 형의 피라미드 섞이면 생명이 끝나는것처럼 원료는 그것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산업의 성격과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바로 이 과정에 착상이 기발하고 독특한 우리 식의 절환변개발이 진척되였다.

마침내 홍성민, 박수봉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수증기가 완전히 새로무연산도 제작가능하고 녹고 동력소비가 훨씬 적을뿐 아니라 운영과정에 겨울철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100% 우리 식의 절환변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핵심장치가 고온공기연소기술을 100% 우리의것으로, 우리 식으로 도입하는데서 큰 몫을 차지하였다는것을 도말할수 없다.

국가과학원에서는 중요한 당정책문제에 대하여 고온공기연소기술도입에서 핵심부분으로 되는 절환변과 벌집형사기촉매를 위한 연구사업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에서 중대안이 진행되도록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조건보장사업을 원만히 해나가기에 특히 연구소들사이의 협동 노력을 잘 펴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1월 국가과학원 현지지도하시면서 과학적진보를 높이로 분투하라고 연구소들사이에서 로멘트를 잘 가지고 협력하면 과학연구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고, 국가과학원 분원들과 연구소들이 절대로 분위주의를 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 기술전이기에 전에 사상전이다

일반적으로 고온공기연소기술은 촉매를 리용하여 페가스의 열로 연료가스를 태우는 연소용기를 1,000°C 이상 가열함으로써 연료소비를 줄이면서 소의 온도를 높이는 에너지를 절약기술이다. 이 기술을 공업로들에 도입하면 증유를 쓰지 않고 연료를 30% 이상 절약하면서도 각종 유해가스방출량을 훨씬 줄일수 있다.

공업로부에서 21세기를 대표하는 건망치이며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되고있는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국가과학원 여러 연구소의 투쟁과정을 놓고 보면 먼저 주목되는것이 있다. 원료의 국산화실현이다.

우리 나라를 지식경제시대의 전열에 올려 세울수 없는것은 물론 민족적자존심도, 우리의 사상전지도 지켜낼수 없다.

리용동무를 비롯한 연구소원들은 과학자들로써 더 깊이 들어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주체철을 하여야 한다는 참으로 뜻깊은 교시를 주시였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촉매제를 국산화하는것은 다름아닌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키고 빛내이는 길이며 당정책을 결사옹위하는 길이다.

이 연구결과는 고온공기연소기술을 새로 받아들이는 단위들에 속속 도입되였으며 이미 이 기술이 도입된 단위들에서 종전의 무연알탄생산공정을 점토를 집결체로 쓰는 공정으로 전환하는데도 도입되였다.

원료의 국산화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연구성과들은 고온공기연소기술을 100% 우리의것으로, 우리 식으로 도입할수 있게 한 첫걸음으로, 튼튼한 기조로 되였다.

원료는 생산의 3대요소라 하므로서 국산화에서 가장 기초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산업이라는 거대한 구조를 생명체로 비유한다면 원료는 피라미드라고 말할수 있다. 피형에 따라 생명체의 속성이 달라지고 서로 다른 형의 피라미드 섞이면 생명이 끝나는것처럼 원료는 그것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산업의 성격과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바로 이 과정에 착상이 기발하고 독특한 우리 식의 절환변개발이 진척되였다.

마침내 홍성민, 박수봉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수증기가 완전히 새로무연산도 제작가능하고 녹고 동력소비가 훨씬 적을뿐 아니라 운영과정에 겨울철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100% 우리 식의 절환변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핵심장치가 고온공기연소기술을 100% 우리의것으로, 우리 식으로 도입하는데서 큰 몫을 차지하였다는것을 도말할수 없다.

국가과학원에서는 중요한 당정책문제에 대하여 고온공기연소기술도입에서 핵심부분으로 되는 절환변과 벌집형사기촉매를 위한 연구사업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에서 중대안이 진행되도록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조건보장사업을 원만히 해나가기에 특히 연구소들사이의 협동 노력을 잘 펴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1월 국가과학원 현지지도하시면서 과학적진보를 높이로 분투하라고 연구소들사이에서 로멘트를 잘 가지고 협력하면 과학연구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고, 국가과학원 분원들과 연구소들이 절대로 분위주의를 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이 중요장치들과 원료를 100% 국산화한 고온공기연소기술도 입원들의 분위주의에 의하여 현실에 도입되지 못하였다면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을 관철하지 못하였을것이며 결국 당정책을 옹위하지 못하였을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은 분위주의의 울타리를 부시고 자기들을 오늘의 성공으로 진심으로 성취해낸것처럼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이 중요장치들과 원료를 100% 국산화한 고온공기연소기술도 입원들의 분위주의에 의하여 현실에 도입되지 못하였다면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을 관철하지 못하였을것이며 결국 당정책을 옹위하지 못하였을것이다.

기술전이기 전에 사상전이다

일단적으로 고온공기연소기술은 촉매를 리용하여 페가스의 열로 연료가스를 태우는 연소용기를 1,000°C 이상 가열함으로써 연료소비를 줄이면서 소의 온도를 높이는 에너지를 절약기술이다. 이 기술을 공업로들에 도입하면 증유를 쓰지 않고 연료를 30% 이상 절약하면서도 각종 유해가스방출량을 훨씬 줄일수 있다.

공업로부에서 21세기를 대표하는 건망치이며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되고있는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국가과학원 여러 연구소의 투쟁과정을 놓고 보면 먼저 주목되는것이 있다. 원료의 국산화실현이다.

우리 나라를 지식경제시대의 전열에 올려 세울수 없는것은 물론 민족적자존심도, 우리의 사상전지도 지켜낼수 없다.

리용동무를 비롯한 연구소원들은 과학자들로써 더 깊이 들어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주체철을 하여야 한다는 참으로 뜻깊은 교시를 주시였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촉매제를 국산화하는것은 다름아닌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키고 빛내이는 길이며 당정책을 결사옹위하는 길이다.

이 연구결과는 고온공기연소기술을 새로 받아들이는 단위들에 속속 도입되였으며 이미 이 기술이 도입된 단위들에서 종전의 무연알탄생산공정을 점토를 집결체로 쓰는 공정으로 전환하는데도 도입되였다.

원료의 국산화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연구성과들은 고온공기연소기술을 100% 우리의것으로, 우리 식으로 도입할수 있게 한 첫걸음으로, 튼튼한 기조로 되였다.

원료는 생산의 3대요소라 하므로서 국산화에서 가장 기초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산업이라는 거대한 구조를 생명체로 비유한다면 원료는 피라미드라고 말할수 있다. 피형에 따라 생명체의 속성이 달라지고 서로 다른 형의 피라미드 섞이면 생명이 끝나는것처럼 원료는 그것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산업의 성격과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바로 이 과정에 착상이 기발하고 독특한 우리 식의 절환변개발이 진척되였다.

마침내 홍성민, 박수봉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수증기가 완전히 새로무연산도 제작가능하고 녹고 동력소비가 훨씬 적을뿐 아니라 운영과정에 겨울철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100% 우리 식의 절환변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핵심장치가 고온공기연소기술을 100% 우리의것으로, 우리 식으로 도입하는데서 큰 몫을 차지하였다는것을 도말할수 없다.

국가과학원에서는 중요한 당정책문제에 대하여 고온공기연소기술도입에서 핵심부분으로 되는 절환변과 벌집형사기촉매를 위한 연구사업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에서 중대안이 진행되도록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조건보장사업을 원만히 해나가기에 특히 연구소들사이의 협동 노력을 잘 펴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1월 국가과학원 현지지도하시면서 과학적진보를 높이로 분투하라고 연구소들사이에서 로멘트를 잘 가지고 협력하면 과학연구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고, 국가과학원 분원들과 연구소들이 절대로 분위주의를 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이 중요장치들과 원료를 100% 국산화한 고온공기연소기술도 입원들의 분위주의에 의하여 현실에 도입되지 못하였다면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을 관철하지 못하였을것이며 결국 당정책을 옹위하지 못하였을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은 분위주의의 울타리를 부시고 자기들을 오늘의 성공으로 진심으로 성취해낸것처럼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이 중요장치들과 원료를 100% 국산화한 고온공기연소기술도 입원들의 분위주의에 의하여 현실에 도입되지 못하였다면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을 관철하지 못하였을것이며 결국 당정책을 옹위하지 못하였을것이다.

### 우리 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현실에서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

과학자들이 만든 이 설비는 좋기는 한데 우리 설치는 잘 맞지 않는다. 만일 공장 나면 값싸게 부족품을 또 사오거나 연구소에 다시 가져가야 하는가, 자재로도 쉽게 고칠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점이 있다. 우리의 현실이, 현장의 로동자들이 과학자들에게 제기하는 심각한 물음이고 절절한 부러움이 있다.

고온공기연소기술도입에 필요한 중요장치들을 모두 국산화한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의 투쟁과정을 분석해보면 이에 대한 심중한 대답이 있다.

우리는 현실에서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

과학자들이 만든 이 설비는 좋기는 한데 우리 설치는 잘 맞지 않는다. 만일 공장 나면 값싸게 부족품을 또 사오거나 연구소에 다시 가져가야 하는가, 자재로도 쉽게 고칠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점이 있다. 우리의 현실이, 현장의 로동자들이 과학자들에게 제기하는 심각한 물음이고 절절한 부러움이 있다.

고온공기연소기술도입에 필요한 중요장치들을 모두 국산화한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의 투쟁과정을 분석해보면 이에 대한 심중한 대답이 있다.

우리는 현실에서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

과학자들이 만든 이 설비는 좋기는 한데 우리 설치는 잘 맞지 않는다. 만일 공장 나면 값싸게 부족품을 또 사오거나 연구소에 다시 가져가야 하는가, 자재로도 쉽게 고칠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점이 있다. 우리의 현실이, 현장의 로동자들이 과학자들에게 제기하는 심각한 물음이고 절절한 부러움이 있다.

고온공기연소기술도입에 필요한 중요장치들을 모두 국산화한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의 투쟁과정을 분석해보면 이에 대한 심중한 대답이 있다.

우리는 현실에서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

과학자들이 만든 이 설비는 좋기는 한데 우리 설치는 잘 맞지 않는다. 만일 공장 나면 값싸게 부족품을 또 사오거나 연구소에 다시 가져가야 하는가, 자재로도 쉽게 고칠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점이 있다. 우리의 현실이, 현장의 로동자들이 과학자들에게 제기하는 심각한 물음이고 절절한 부러움이 있다.

고온공기연소기술도입에 필요한 중요장치들을 모두 국산화한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의 투쟁과정을 분석해보면 이에 대한 심중한 대답이 있다.

우리는 현실에서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

과학자들이 만든 이 설비는 좋기는 한데 우리 설치는 잘 맞지 않는다. 만일 공장 나면 값싸게 부족품을 또 사오거나 연구소에 다시 가져가야 하는가, 자재로도 쉽게 고칠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점이 있다. 우리의 현실이, 현장의 로동자들이 과학자들에게 제기하는 심각한 물음이고 절절한 부러움이 있다.

고온공기연소기술도입에 필요한 중요장치들을 모두 국산화한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의 투쟁과정을 분석해보면 이에 대한 심중한 대답이 있다.

우리는 현실에서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

과학자들이 만든 이 설비는 좋기는 한데 우리 설치는 잘 맞지 않는다. 만일 공장 나면 값싸게 부족품을 또 사오거나 연구소에 다시 가져가야 하는가, 자재로도 쉽게 고칠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점이 있다. 우리의 현실이, 현장의 로동자들이 과학자들에게 제기하는 심각한 물음이고 절절한 부러움이 있다.

고온공기연소기술도입에 필요한 중요장치들을 모두 국산화한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의 투쟁과정을 분석해보면 이에 대한 심중한 대답이 있다.

이것이 기술이 모자라서인가 아니었다. 부족했던것은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당에서 바라는데로 100% 우리의것으로, 우리 식으로 도입하였다는 투철한 정신이었다.

사상과 신념이 100%짜리가 되어야 원료도 100% 국산화할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있다. 원료국산화를 위한 투쟁은 단순한 기술전이 아니라 사상전이였다.

희생을 집중해야 할 대상은 일부 과학자들의 머리속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수입병이었다. 수입병을 뿌리채 없애지 않고서는

이것이 기술이 모자라서인가 아니었다. 부족했던것은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당에서 바라는데로 100% 우리의것으로, 우리 식으로 도입하였다는 투철한 정신이었다.

사상과 신념이 100%짜리가 되어야 원료도 100% 국산화할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있다. 원료국산화를 위한 투쟁은 단순한 기술전이 아니라 사상전이였다.

희생을 집중해야 할 대상은 일부 과학자들의 머리속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수입병이었다. 수입병을 뿌리채 없애지 않고서는

이것이 기술이 모자라서인가 아니었다. 부족했던것은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당에서 바라는데로 100% 우리의것으로, 우리 식으로 도입하였다는 투철한 정신이었다.

사상과 신념이 100%짜리가 되어야 원료도 100% 국산화할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있다. 원료국산화를 위한 투쟁은 단순한 기술전이 아니라 사상전이였다.

희생을 집중해야 할 대상은 일부 과학자들의 머리속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수입병이었다. 수입병을 뿌리채 없애지 않고서는

이것이 기술이 모자라서인가 아니었다. 부족했던것은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당에서 바라는데로 100% 우리의것으로, 우리 식으로 도입하였다는 투철한 정신이었다.

사상과 신념이 100%짜리가 되어야 원료도 100% 국산화할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있다. 원료국산화를 위한 투쟁은 단순한 기술전이 아니라 사상전이였다.

희생을 집중해야 할 대상은 일부 과학자들의 머리속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수입병이었다. 수입병을 뿌리채 없애지 않고서는

이것이 기술이 모자라서인가 아니었다. 부족했던것은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당에서 바라는데로 100% 우리의것으로, 우리 식으로 도입하였다는 투철한 정신이었다.

사상과 신념이 100%짜리가 되어야 원료도 100% 국산화할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있다. 원료국산화를 위한 투쟁은 단순한 기술전이 아니라 사상전이였다.

희생을 집중해야 할 대상은 일부 과학자들의 머리속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수입병이었다. 수입병을 뿌리채 없애지 않고서는

이것이 기술이 모자라서인가 아니었다. 부족했던것은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당에서 바라는데로 100% 우리의것으로, 우리 식으로 도입하였다는 투철한 정신이었다.

사상과 신념이 100%짜리가 되어야 원료도 100% 국산화할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있다. 원료국산화를 위한 투쟁은 단순한 기술전이 아니라 사상전이였다.

희생을 집중해야 할 대상은 일부 과학자들의 머리속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수입병이었다. 수입병을 뿌리채 없애지 않고서는

### 제2차 전국청년미공선구자대회 참가자들 중요대상건설장들을 지원

【평양 5월 17일합 조진중앙 통신】 제2차 전국청년미공선구자대회 참가자들이 17일 수도의 중요대상건설장들을 찾아 건설자들을 로력적으로 지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마련해주신 뜻깊은 대회에 참가하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는 무한한 영광을 지닌 대회참가자들은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장소들로 훌륭히 일떠서고있는 미백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당건설장 등에서 당의 전투적소속이라 대상건설을 당창건 일흔둘주년으로 완공하기 위해

불철주야의 힘찬 전투를 벌리고 있는 건설자들과 함께 애국충정의 구슬땀을 바치였다.

새로운 평양건설, 평양속도를 창조해가는 전투원들의 혁신적투쟁으로 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어가는 공사장들을 그들도 높은 건설속도를 도와 자재도 나르고 자재대리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서거지 준비한 지원원자들도 너거주였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혁명선열처럼, 당의 부름이아

면 산으로, 바다로, 새로운 개발지로 앞을 다투어 달려나간 아버지, 어머니세대처럼 부강조국건설의 전투들마디에서 자랑찬 위훈을 세움으로써 조선전열의 영웅적기과를 슬기롭게 남김없이 펼쳐갈 의지가 대외화자들이 이 속에, 애국헌, 학원의 원아들을 위하여 뜨거운 정을 쏟아 붓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름없이 잘살게 하는것이 우리 당의 루정목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위해서라면 세상 그 무엇이 아깝지도 다 두려우지 않다.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을 심장으로 절감하며 녀맹조직들과 일군들, 녀맹원들이 육아원, 애국헌, 학원의 원아들을 위하여 뜨거운 정을 쏟아 붓고있다.

자강도안의 녀맹조직들과 일군들은 육아원, 애국헌, 학원원아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는것을 녀맹위원회의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있다.

###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성히 받들고

이 땅에 어울리는 정과 사랑이 공기처럼 흐르고있다.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성히 받들고 각지 녀맹조직들과 일군들, 녀맹원들 슬과 생활에 필요한 수많은 필수품들을 마련하여 원아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또한 15대의 배풍기를 육아원의 보육방에 설치해두었으며 탁구대와 중계, 선공기를 비롯한 많은 생활필수품들을 갖추어줌으로써 원아들의 웃음소리가 더 높고 울려퍼지게 하였다.

황해북도녀맹위원회의 일군들은 도사이별위원회로 보고 있는 50여명의 원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돌봄품을 비롯한 많은 영양식품들을 마련해가지고 달려가 원아들의 회복치료에 기여하였다.

사리원시녀맹위원회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매월 첫주 일요일을 원아들을 위한 날로 정하고 육아원, 애국헌의 보육 및 교양공간과 생활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좋은 일도 찾아하면서 원아들의 생활을 다스려주었다.

보통강구역녀맹위원회의 일군들은 몇몇동안이나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에게 천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부여주었다. 그들은 육아원에 또 여러차례나 찾아가 원아들에게 솜옷과 날, 학용품도 비롯한 10종에 200여점의 생활필수품들을 나누어주면서 그들과 함께 명절도 즐겁게 보내였다.

함흥시녀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육아원, 애국헌을 돕기 위한 단계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시녀맹위원회에서는 녀맹원들에게 들어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육아원, 애국헌을 여러차례에 걸쳐 많은 주방도구들과 화식기재들을 마련해 주었다.

각지 녀맹조직들과 일군들, 녀맹원들 슬과 생활에 필요한 수많은 필수품들을 마련하여 원아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또한 15대의 배풍기를 육아원의 보육방에 설치해두었으며 탁구대와 중계, 선공기를 비롯한 많은 생활필수품들을 갖추어줌으로써 원아들의 웃음소리가 더 높고 울려퍼지게 하였다.

황해북도녀맹위원회의 일군들은 도사이별위원회로 보고 있는 50여명의 원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돌봄품을 비롯한 많은 영양식품들을 마련해가지고 달려가 원아들의 회복치료에 기여하였다.

사리원시녀맹위원회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매월 첫주 일요일을 원아들을 위한 날로 정하고 육아원, 애국헌의 보육 및 교양공간과 생활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좋은 일도 찾아하면서 원아들의 생활을 다스려주었다.

보통강구역녀맹위원회의 일군들은 몇몇동안이나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에게 천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부여주었다. 그들은 육아원에 또 여러차례나 찾아가 원아들에게 솜옷과 날, 학용품도 비롯한 10종에 200여점의 생활필수품들을 나누어주면서 그들과 함께 명절도 즐겁게 보내였다.

함흥시녀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육아원, 애국헌을 돕기 위한 단계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시녀맹위원회에서는 녀맹원들에게 들어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육아원, 애국헌을 여러차례에 걸쳐 많은 주방도구들과 화식기재들을 마련해 주었다.

원 김영희동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공력명령으로 그처럼 남십수 속에서도 신년사를 마친길로 평양육아원, 애국헌부터 찾아주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가만히 앉아있을수 없었다 하면서 그 곁을오르 달려나가 아담순살 1000여원짜리를 마련하여 육아원, 애국헌에 보내주었다.

각지 녀맹조직들과 일군들, 녀맹원들은 부모없는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그들을 남부럽지 않게 내세우기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고있다.

향산군녀맹위원회에서는 부모없는 아이들 30여명의 생일상을 차려주고 그들이 없게 한 부모없는 설움이 없어지게 웃으며 생활할수 있도록 뜨거운 정을 쏟았다.

봉산군녀맹위원회에서는 녀맹원들이 천 어머니의 심정으로 봉산학원 원아들의 생일상을 성의껏 차려주게 하고 이 사업을 통하여 서로 돕고 위해주며 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실감있게 되길바라는 마음을 다졌다.

평양시녀맹위원장 김은희동무는 부모없는 아이들 45명들을 데려다 키우겠다는 선공력으로 웃애들의 한 가정세대를 스스로 맡아 생활상 로되는 문제들을 로해하고 따뜻이 돌봐주고있다.

평천구역녀맹위원장 리봉순동무는 구역안의 부모없는 어린 아이들을 장악하고 초급녀맹원들과 함께 그들의 학습과 생활에서 결된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해주시녀맹위원장 차순이동

### 10여년을 하루와 같이

단천시체신소 향구체신소 우편직업반 반장 최순심동무는 10여년을 하루와 같이 누가 보지않고, 알아주지않고 담보물도 비롯한 출판물들과 우편물들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올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가 실린 당보가 도착하였을 때 그는 자기 담당구역뿐 아니라

### 하루와 같이

하루와 같이

단천시체신소 향구체신소 우편직업반 반장 최순심동무는 10여년을 하루와 같이 누가 보지않고, 알아주지않고 담보물도 비롯한 출판물들과 우편물들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올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가 실린 당보가 도착하였을 때 그는 자기 담당구역뿐 아니라

### 해설해주시도 한다.

해설해주시도 한다.

단천시체신소 향구체신소 우편직업반 반장 최순심동무는 10여년을 하루와 같이 누가 보지않고, 알아주지않고 담보물도 비롯한 출판물들과 우편물들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올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가 실린 당보가 도착하였을 때 그는 자기 담당구역뿐 아니라



이것이 기술이 모자라서인가 아니었다. 부족했던것은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당에서 바라는데로 100% 우리의것으로, 우리 식으로 도입하였다는 투철한 정신이었다.

사상과 신념이 100%짜리가 되어야 원료도 100% 국산화할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있다. 원료국산화를 위한 투쟁은 단순한 기술전이 아니라 사상전이였다.

희생을 집중해야 할 대상은 일부 과학자들의 머리속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수입병이었다. 수입병을 뿌리채 없애지 않고서는

이것이 기술이 모자라서인가 아니었다. 부족했던것은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당에서 바라는데로 100% 우리의것으로, 우리 식으로 도입하였다는 투철한 정신이었다.

사상과 신념이 100%짜리가 되어야 원료도 100% 국산화할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있다. 원료국산화를 위한 투쟁은 단순한 기술전이 아니라 사상전이였다.

희생을 집중해야 할 대상은 일부 과학자들의 머리속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수입병이었다. 수입병을 뿌리채 없애지 않고서는

이것이 기술이 모자라서인가 아니었다. 부족했던것은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당에서 바라는데로 100% 우리의것으로, 우리 식으로 도입하였다는 투철한 정신이었다.

사상과 신념이 100%짜리가 되어야 원료도 100% 국산화할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있다. 원료국산화를 위한 투쟁은 단순한 기술전이 아니라 사상전이였다.

희생을 집중해야 할 대상은 일부 과학자들의 머리속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수입병이었다. 수입병을 뿌리채 없애지 않고서는

이것이 기술이 모자라서인가 아니었다. 부족했던것은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당에서 바라는데로 100% 우리의것으로, 우리 식으로 도입하였다는 투철한 정신이었다.

사상과 신념이 100%짜리가 되어야 원료도 100% 국산화할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있다. 원료국산화를 위한 투쟁은 단순한 기술전이 아니라 사상전이였다.

희생을 집중해야 할 대상은 일부 과학자들의 머리속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수입병이었다. 수입병을 뿌리채 없애지 않고서는

# 광주의 벗을 이어 결사의 투쟁으로 파쇼독재통치를 단호히 끝장내자

남조선에서 영웅적광주민병기가 있는 때로부터 서른다섯해가 되었다. 광주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은 왜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섰던가. 그들이 죽음도 두려움없이 피의 결사전에 나섰던것은 바로 쫓아도 소원인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외세가 없고 독재가 없는 민주적 세상에서 인간의 참된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그들의 념원은 야수적인 총칼 폭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과연 누가 정의에 불타고 애국에 열렬한 광주항쟁용사들을 살육하였는가.

다름아닌 미국과 피뢰군부장관들이었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광주민병기자들의 견결한 투쟁정신은 오늘도 남녘땅을 만민자주와,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으로 부르고있다. 본사기자 김향미

오늘도 남조선인민들은 사회경제가 철창없는 감옥으로 되고있는 속에 눈을 있어도 볼수 없고 입을 있어도 말할수 없었던 군부파쇼독재시대를 (인권이 개권보다 못하였던 시기)라고 하면서 두고두고 저주하고있다. 전두환, 로태우군사장관들이 전지도 아닌 평화시기에 민주주의를 위해 걸기해나선 시민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대살륙작전을 벌려 온 도시를 물서리치는 피의 목욕탕으로 만든 광주대살육행은 동서고금을 물서리치는 피의 역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가장 잔인무도한 짓이었다.

## 재현되고있는 군부독재통치

오늘도 남조선인민들은 사회경제가 철창없는 감옥으로 되고있는 속에 눈을 있어도 볼수 없고 입을 있어도 말할수 없었던 군부파쇼독재시대를 (인권이 개권보다 못하였던 시기)라고 하면서 두고두고 저주하고있다. 전두환, 로태우군사장관들이 전지도 아닌 평화시기에 민주주의를 위해 걸기해나선 시민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대살륙작전을 벌려 온 도시를 물서리치는 피의 목욕탕으로 만든 광주대살육행은 동서고금을 물서리치는 피의 역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가장 잔인무도한 짓이었다.

광주대살육행은 동서고금을 물서리치는 피의 목욕탕으로 만든 광주대살육행은 동서고금을 물서리치는 피의 역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가장 잔인무도한 짓이었다. 광주대살육행은 동서고금을 물서리치는 피의 목욕탕으로 만든 광주대살육행은 동서고금을 물서리치는 피의 역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가장 잔인무도한 짓이었다.

광주대살육행은 동서고금을 물서리치는 피의 목욕탕으로 만든 광주대살육행은 동서고금을 물서리치는 피의 역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가장 잔인무도한 짓이었다. 광주대살육행은 동서고금을 물서리치는 피의 목욕탕으로 만든 광주대살육행은 동서고금을 물서리치는 피의 역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가장 잔인무도한 짓이었다.

광주대살육행은 동서고금을 물서리치는 피의 목욕탕으로 만든 광주대살육행은 동서고금을 물서리치는 피의 역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가장 잔인무도한 짓이었다. 광주대살육행은 동서고금을 물서리치는 피의 목욕탕으로 만든 광주대살육행은 동서고금을 물서리치는 피의 역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가장 잔인무도한 짓이었다.

##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광주민병기는 미국의 식민지 지배와 전두환, 로태우일당의 포악한 군부파쇼독재통치를 끝장내고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피어린 반미파쇼애국투쟁이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애국투쟁이 자라고 반파쇼민주화투쟁이 반미자주화투쟁으로 발전하는데서 광주민병기는 하나의 분기점으로 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영웅적광주민병기가 있는 때로부터 서른다섯해가 되었다. 광주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은 왜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섰던가. 그들이 죽음도 두려움없이 피의 결사전에 나섰던것은 바로 쫓아도 소원인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외세가 없고 독재가 없는 민주적 세상에서 인간의 참된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그들의 념원은 야수적인 총칼 폭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과연 누가 정의에 불타고 애국에 열렬한 광주항쟁용사들을 살육하였는가.

다름아닌 미국과 피뢰군부장관들이었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광주민병기자들의 견결한 투쟁정신은 오늘도 남녘땅을 만민자주와,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으로 부르고있다. 본사기자 김향미

1979년 《유신》독재가 종말을 고한 후 남조선에서는 새 정치, 새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과 열망이 급격히 고조되었다. 하지만 1.2.12속군쿠데타로 군부의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로태우일당은 1980년 봄 미제의 지령에 따라 높아가는 인민들의 민주화요구에 5.17군사파쇼폭주에 도전해나섰다. 그것은 남조선에서 새로운 군부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일대 파쇼광란이었으며 또 하나의 《정권》강탈을 도모했다.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분노는 드디어 1980년 5월 18일 광주민병기의 거세한 불길로 타올랐다.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선 분기자들은 《비상계엄령해제》, 《유신체제철폐》, 《민주주의개혁실시》, 《민주정부수립》, 《양키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중무장한 계엄군과 용감히 맞서 싸웠다. 그들은 계엄군의 무기를 빼앗아 무장하고 결사의 항쟁을 벌였다. 항쟁의 불길은 삼시에 목포와 라주, 화산과 명랑, 담양을 비롯한 넓은 지역으로 번져갔다. 이에 질겁한 미국은 남조선군사파쇼분

자들에게 분기군중을 《무죄추적으로 진압하라.》는 살인지령을 내리었다. 피뢰군인당들은 《폭도들의 종자를 멸종》시켰다고 고야대면서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력사에 그 이름을 찾아볼수 없는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한 동족대살육행들을 감행하였다. 그것은 실로 하나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것이였다. 광주는 삼시에 몸서리치는 피의 도시로 화하였다. 광주민병기를 통하여 자주와 민주의 교살자이며 침략과 학살의 친홍인 미국의 정체를 고발하고, 광주대살육행의 실인마적본질을 온 세상에 날같이 드러냈다. 광주민병기는 비록 미국의 조종과 부추김을 받은 피뢰군부파쇼당당의 야수적인 탄압에 의하여 좌절되었지만 분기자들은 10일동안이나 도시를 수습하는 영웅적위훈을 세웠다. 광주민병기는 장기간 지속되어온 군사파쇼독재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미국의 식민주의통치를 밀부리체 뒤엎었으며 남녘땅에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거센 불꽃을 불렀다. 남조선에서 광주민병기자들의 넘겨 투쟁정신을 이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우리의 절박한 과제이다. 광주민병기가 있는 때로부터 35년의 기나긴 세월이 흘렀지만 자주화되고 인민화된 새 사회, 나라의 통일에 대한 항쟁용사들의 념원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였다. 지금도 남조선인민들은 외세와 매국노들에 의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짓밟히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여전히 정치, 경제,

군사 등 제반 분야에 걸쳐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사회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고 파쇼독재체제를 남구 뒤받침해오고있다.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존엄과 권리를 짓밟으면서 살인, 폭력, 강간 등 온갖 범죄행위를 계속 저지르고있다. 남조선에서 날로 심화되는 미국의 지배와 예속은 현 피뢰집권세력의 추악한 침미사태대국책들의 산물이기도 하다. 미국의 작극적인 지지와 후원밑에 집권한 피뢰보수당당은 상진에게 침략자의 남조선영구장점과 《동맹》강화, 전직작전준비전환의 무기한 연기를 구걸하면서 민족적이익을 강고히 팔아먹고있다. 그들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을 본분 반공화국대결정책인 《신프로세스》라는것을 들고나와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광민족적 부침전경도탈락 등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다. 더우기 엄중시하지 않음은 이것은 현 피뢰집권세력의 악랄한 《유신》독재부활책동이다. 현 피뢰집권자는 《유신》의 후예로서 과거의 악명높은 파쇼독재체제를 고스란히 되살려내고 있다.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망언을 서슴없이 늘어놓은 피뢰집권자는 《유신》잔당들을 권력의 요직들에 들여앉히고 그들에게 과거에 대해 독재통치를 일삼으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고히 말살하고있다. 피뢰파들은 지금이 《50년대 맹진시기보다 안보가 더 위태롭다.》는 나팔을 불어대면서 《보안법》의 칼날을 파국에 몰아넣고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파쇼적탄압에 미쳐달라고있다. 이로 하여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이 피로써 쟁취한 민

## 《벗》이 아니라 살륙의 원흉이다

위한 무력지원을 강화할데 대한 긴급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제 침략군사령관 존 워커의 휘하에 있는 피뢰군 3개 여단의 특전대와 3개 사단의 병력, 기갑부대와 비행대 등 수만명의 병력과 탱크, 장갑차, 포사포, 직속 공, 미사일을 비롯한 대항상륙륙기 등 방대한 무력을 피뢰군부파쇼들에게 넘겨주고 피뢰군을 광주대살육작전에 내몰았다. 한편 전두환, 로태우일당에게 《광주폭도들을 무죄추적으로 진압하라.》 미국은 자기 동맹자를 옹호할것이다.》라고 하면서 파쇼학살행위를 적극 부추기고 뒤받침해주었다. 이에 대해서는 전두환역도 자기도 《광주진압은 미국과 동의하여 한것》이라고 실로 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미국은 자기 무력까지 광주민병기탄압에 투입하였다. 광주대살육행의 목격자들은 광주민병기가 한창일 때 미 8군사수 직속기들이 광주상공에서 나타나 주민들

## 영원히 지을수 없는 항거의 노래

이 참가자들의 비난을 자아냈다. 올해에도 피뢰부호흔치는 그 무슨 《주론분화》이니 뭐니 하며 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 노래를 제창하러 갈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민들의 노래는 영원히 지을수 없는 법이다. 남조선의 한 음악평론가는 자기의 글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오늘날도 동행항거의 대가, 거머잡고 널리 불려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투쟁의 노래, 단결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민족의 의지를 담은 이 노래가 위정자들의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지만 그 생명력은 끊임없이 이어져가고있다.》고 토로하였다. 그렇다. 노래는 심장의 언어이다. 악랄한 파쇼의 무리들이 제아무리 날뛰어도 남조선인민들의 심장속에 새겨진 광주의 영, 투쟁의 선율은 남녘의 하늘가에 더욱 힘차게 울려 퍼지고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항쟁용사들의 뒤를 이어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 악취풍기는 악담질에 이끌리 난 박근혜야말로 우리 민족의 수치이고 비극이다

이 참가자들의 비난을 자아냈다. 올해에도 피뢰부호흔치는 그 무슨 《주론분화》이니 뭐니 하며 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 노래를 제창하러 갈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민들의 노래는 영원히 지을수 없는 법이다. 남조선의 한 음악평론가는 자기의 글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오늘날도 동행항거의 대가, 거머잡고 널리 불려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투쟁의 노래, 단결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민족의 의지를 담은 이 노래가 위정자들의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지만 그 생명력은 끊임없이 이어져가고있다.》고 토로하였다. 그렇다. 노래는 심장의 언어이다. 악랄한 파쇼의 무리들이 제아무리 날뛰어도 남조선인민들의 심장속에 새겨진 광주의 영, 투쟁의 선율은 남녘의 하늘가에 더욱 힘차게 울려 퍼지고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항쟁용사들의 뒤를 이어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 대규모적인 반 《정부》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남조선인민들

이 참가자들의 비난을 자아냈다. 올해에도 피뢰부호흔치는 그 무슨 《주론분화》이니 뭐니 하며 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 노래를 제창하러 갈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민들의 노래는 영원히 지을수 없는 법이다. 남조선의 한 음악평론가는 자기의 글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오늘날도 동행항거의 대가, 거머잡고 널리 불려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투쟁의 노래, 단결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민족의 의지를 담은 이 노래가 위정자들의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지만 그 생명력은 끊임없이 이어져가고있다.》고 토로하였다. 그렇다. 노래는 심장의 언어이다. 악랄한 파쇼의 무리들이 제아무리 날뛰어도 남조선인민들의 심장속에 새겨진 광주의 영, 투쟁의 선율은 남녘의 하늘가에 더욱 힘차게 울려 퍼지고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항쟁용사들의 뒤를 이어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 박근혜의 구원내나는 악담질이 온 겨레를 크게 격노케 하고있다.

원색없이 쏟아지는 그 악담질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들, 특히는 우리 녀성들의 분노를 하늘까지 치명케 하고있다. 남조선당 제정안에서도 성차지 않아 여러 나라들을 개싸다나듯 하며 제쳐두고있는 박근혜의 못된 동족대살육작전은 뾰족한 혀를 날름거리며 독을 내뿜는 독사의 모양 그대르이다. 요즘에는 박근혜가 그 무슨 《체제의 불안정》으로 우리가 《골 리머어질것》이라는 풍유변환자의 개공같은 망발만 늘어놓는가 하면 《병진전선은 실현불가능》하며 국제사회와의 《교류의 길을 자초》하고있다고 계겨움을 들고 고이대나 했다 《북인문문제》를 더 이상 묵인할수 없다고 언성을 높여대고있다. 세계가 놀라움과 부러움으로 지켜본 우리의 정정당당한 전략적합의 탄도탄수증발사의 성공수석에 기뻐하며자 나중에는 도적이 매를 드는 식으로 《도발》이요, 《위협조성》이요 하면서 《즉각적인 대응》과 《단호한 응징》을 가하라고 피뢰군부호전광들은 군사적대결로 내몰아내고있다. 지어 요연을 통한 새로운 압박조치까지 유도해보려고 어리석게 높아내고있는것이 박근혜이다. 동족대살육에 얼마나 환장이 되었는지 최근에는 텔레비전화면까지 자주 머리를 내밀고 그 누구의 《도발적행동》을 용인할수 없다니, 《국도의 공포정치》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느니 하는 악담까지 거꺼질없이 내뿜고있다. 흑백을 전도하고 사실을 오도해도 분수가 있다. 아무리 동족을 헐뜯어대고 비방해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우리 민족 분열사에 동족대결로 악명을 떨친 악한들이 없지 않았으나 박근혜와 같이 아찔무리 저러까지, 날조무리 말까지 난단 쯤까지도 일만 벌여치면 동족을 모해하고 대결을 고취한 그런 악당년은 일찌기 없었다. 박근혜가 과연 치마두른 녀성인가.

## 이 참가자들의 비난을 자아냈다.

이 참가자들의 비난을 자아냈다. 올해에도 피뢰부호흔치는 그 무슨 《주론분화》이니 뭐니 하며 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 노래를 제창하러 갈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민들의 노래는 영원히 지을수 없는 법이다. 남조선의 한 음악평론가는 자기의 글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오늘날도 동행항거의 대가, 거머잡고 널리 불려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투쟁의 노래, 단결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민족의 의지를 담은 이 노래가 위정자들의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지만 그 생명력은 끊임없이 이어져가고있다.》고 토로하였다. 그렇다. 노래는 심장의 언어이다. 악랄한 파쇼의 무리들이 제아무리 날뛰어도 남조선인민들의 심장속에 새겨진 광주의 영, 투쟁의 선율은 남녘의 하늘가에 더욱 힘차게 울려 퍼지고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항쟁용사들의 뒤를 이어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 이 참가자들의 비난을 자아냈다.

이 참가자들의 비난을 자아냈다. 올해에도 피뢰부호흔치는 그 무슨 《주론분화》이니 뭐니 하며 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 노래를 제창하러 갈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민들의 노래는 영원히 지을수 없는 법이다. 남조선의 한 음악평론가는 자기의 글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오늘날도 동행항거의 대가, 거머잡고 널리 불려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투쟁의 노래, 단결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민족의 의지를 담은 이 노래가 위정자들의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지만 그 생명력은 끊임없이 이어져가고있다.》고 토로하였다. 그렇다. 노래는 심장의 언어이다. 악랄한 파쇼의 무리들이 제아무리 날뛰어도 남조선인민들의 심장속에 새겨진 광주의 영, 투쟁의 선율은 남녘의 하늘가에 더욱 힘차게 울려 퍼지고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항쟁용사들의 뒤를 이어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 이 참가자들의 비난을 자아냈다.

이 참가자들의 비난을 자아냈다. 올해에도 피뢰부호흔치는 그 무슨 《주론분화》이니 뭐니 하며 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 노래를 제창하러 갈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민들의 노래는 영원히 지을수 없는 법이다. 남조선의 한 음악평론가는 자기의 글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오늘날도 동행항거의 대가, 거머잡고 널리 불려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투쟁의 노래, 단결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민족의 의지를 담은 이 노래가 위정자들의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지만 그 생명력은 끊임없이 이어져가고있다.》고 토로하였다. 그렇다. 노래는 심장의 언어이다. 악랄한 파쇼의 무리들이 제아무리 날뛰어도 남조선인민들의 심장속에 새겨진 광주의 영, 투쟁의 선율은 남녘의 하늘가에 더욱 힘차게 울려 퍼지고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항쟁용사들의 뒤를 이어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